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첫삽'

건립공사 기공식 개최... 미래 먹거리 생태계 구축

익산시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책임질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한다.

시는 지난 20일 오택립 익산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강경숙 산업건설위원장 유관기관, 단체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는 농식품부 'APC 지원사업 및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57억원의 예산으로 제4산단단지 내에 연면적

2,584㎡ 규모로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시설은 HACCP 시설인증에 적합한 농산물 집하·소분·포장·전처리 시설과 사무공간을 갖춘 주민물동과 저온저장고동 안전성분석실 총 3개동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내년도 학교급식을 시작으로 공공먹거리 수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공공급식 영역을 확대해 하립,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등 지역업체에도 상생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오택립 익산시장 권한대행은 "익산시 푸드플랜 핵심시설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생산자와 소비자 농업과 기업,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행복한 미래 먹거리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미래 먹거리 생태계 구축을 위해 푸드플랜(먹거리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설립했다.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을 시작으로 학교급식 향후에는 공공급식으로 영역을 확장해 지역 내 생산·소비체계 구축해 도농상생 발전의 기반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익산시는 지난 20일 원광대학교에서 XR(확장현실) 소재·부품·장비 산업 및 교육지원센터인 XR관 개관식을 가졌다.

초실감 콘텐츠 선도도시로

익산시, 원광대 서예관에 'XR 교육지원센터' 개관

익산시는 지난 20일 원광대학교에서 XR(확장현실) 소재·부품·장비 산업 및 교육지원센터인 XR관 개관식을 가졌다.

개관식은 원광대학교 김우순 교수의 사회로 1부 개관식(축사 및 센터 소개 / XR 기술 교육 및 산업 확산 방안 소개)과 2부 현관식(현관제막식 및 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이춘석 국회의원, 신원식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오택립 익산시장 권한대행 등 관련 부처 및 전담 기관과 사업 수행기관 및 XR 관련 기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XR관은 원광대학교 서예관에 위치하며 XR 소재·부품 분야 테스트 지원을 위한 소재·부품실, 기술개발실, 테스트지원실 및 기업 입주공간과 회의실, 기업 제품 전시·홍보 겸용 공간인 XR 카페테리아 등을 갖추고 있다.

이번 XR관 구축은 XR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 진행된 것

으로 지난해 개소한 XR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에 이어 XR 산업 관련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센터에서는 전국 XR 산업 관련 기업체의 제품성능평가 컨설팅, 기업 간 비즈니스 매칭, XR 관련 시장동향 및 기술정보 제공, 기술교류회를 통한 네트워킹의 장 마련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제품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및 국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지원, 홍보물 제작 광고지원, 시험·인증·특허 지원 등 기업의 제품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화 지원 등의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택립 익산시장 권한대행은 "익산은 앞으로 교육, 문화, 산업현장에 이르기까지 XR산업 영역을 다양하게 확대해 시민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초실감 콘텐츠 선도도시로 거듭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 에너지자립마을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추진

에너지자립도 50% 실증 구축과제

군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에너지기술 개발사업'에 선정돼 에너지자립마을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나포면 문화마을 일원을 대상으로 자체 에너지 소비대체율 50% 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반 융복합형 마을단위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기술개발 사업이다.

총 사업비 23억 중 국비 15억원, 시비 1억원, 연구개발기관 7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2024년까지 4년간 마을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마이크로그리드 통합 플랫폼 구축, 이웃간 전력거래 모델 개발을 진행, 공동 분산전원 구축을 통한 지역주도 에너지 자립마을을 구축할 예정이다.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사업에는 주

관 연구개발기관 신성이앤에스 참여 연구개발기관 한국기계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라온프렌즈,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사회적협동조합 새로이가 공동으로 수행한다.

시 관계자는 "나포면 문화마을을 시작으로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대표적인 에너지 자립마을로 구축하여, 관내 여러 마을에도 에너지 자립마을이 확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가족정책 유공 '국무총리 표창' 수상

익산시가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및 가족 친화 문화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시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2년 가족정책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개인 67명, 기관·단체 18개소 가운데 지자체 중 유일하게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이번 수상을 통해 군산시의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역사회 정착지원과 인식개선을 통한 지역사회통합 노력 활동 등이 성과로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시는 지난 2019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을 추진해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여성과 가족, 다문



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한곳에서 집중해 제공하고자 생협SOC 복합화 사업으로 가족센터 건립을 진행하고 있다.

도내 최초 글로벌 전시체험시설인 익산글로벌문화관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개관 후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익산역에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를

설치해 타 부처 및 민간단체와 함께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인 정착에 필요한 민원행정 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익산다문화가족지원정책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 주민에게도 익산시제안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전국 최초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서 채용을 늘리고 있고,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이 만남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군산시 모내기철 '육묘 알선 창구' 운영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모내기철 농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해결하기 위해 2모작 모내기가 끝나는 6월말 까지 남겨나 부족한 육묘를 농가간 연결해주는 '육묘알선 창구'를 운영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모내기를 마치고 모가 남은 농가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또는 읍면동 농민상담소에서 운영하는 육묘알선창구에 연락하면, 육묘에 실패하거나 모가 부족한 농가에 실시간 연계되어 효과적으로 남은 모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시는 관내 육묘장의 육묘현황을 파악하고 각 읍면 농민상담소와의 연락망을 구축해 과생산된 모의 폐기를 막고, 육묘 실패농가의 못자리 재실치 노동력과 비용을 줄여 적기에 모내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운영된 육묘알선창구에서는 55농가 1만5,200상자를 알선해 85ha에 차질없이 모내기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 농가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군은 관내 육묘장의 육묘현황을 파악하고 각 읍면 농민상담소와의 연락망을 구축해 과생산된 모의 폐기를 막고, 육묘 실패농가의 못자리 재실치 노동력과 비용을 줄여 적기에 모내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운영된 육묘알선창구에서는 55농가 1만5,200상자를 알선해 85ha에 차질없이 모내기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 농가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